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고용 악화 “오히려 좋아”..S&P500 ‘최고가’

- 고용 악재에 증시는 상승: S&P 500 ‘사상 최고’
- 미국 7월 고용 예상 외 감소..전달 수치도 하향 조정
- 금리 인상 기대 후퇴, 미 국채금리 • 달러 ↓

Summary

Bad news is Good news: 미국증시 상승

현지시각 8월 7일 금요일 미국증시는 예상을 크게 하회한 7월 고용 보고서 결과에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크게 후퇴하며 국채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와 맞물려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8% 상승한 54,036.93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62% 상승한 7,757.64에 마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나스닥 지수는 1.30% 상승한 26,690.62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1.19% 상승. 러셀2000 지수 역시 1.10% 상승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1.65% 하락.

(다우 +0.28%/ S&P500 +0.62%/ 나스닥 +1.30%/ 러셀2000 +1.10%)

주간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2주째 상승세를 유지함. 다우지수는 한 주간 2.96%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3.58%, 나스닥 지수는 5.19% 상승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근접하는 흐름. 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한 주간 9.25% 급등했고 나스닥 100지수도 5.12% 상승.

7월 고용 예상 밖 악화

7월 들어 미국 고용의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에 비해 2만 3,000명 감소를 기록. 이는 8만 3,000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 대비 ‘쇼크’ 수준의 부진. 앞서 발표됐던 5월과 6월 수치도 각각 6만 6,000명, 3만 7,000명 하향 조정돼 5~6월 고용자 증가폭 하향조정분은 총 10만 3,000명을 기록. 7월 실업률은 4.1%로 전달 4.2% 대비 하락했을 뿐 아니라 시장 예상 4.2%를 하회. 다만 실업률 하락은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즉 실업률 하락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업자가 감소해서 나타난 긍정적인 수치라고 읽기보다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고용 시장에서 아예 이탈한 사람이 늘어난 때문으로 읽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 대비 0.1%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 고용 시장발 인플레이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

미국의 고용 시장은 최근 안정권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나 들여다보면 건강한 균형에 따른

안정이 아닌 해고도 고용도 없는 취약한 균형 상태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임. 이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신규 채용에 도 나서지 않는 ‘저고용, 저해고’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기업 이익이 꽤 강력하고 순탄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이익이 고용 시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

고용 ‘악화’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 ‘악화’에 주목

이날 시장은 고용의 ‘악화’라는 지점보다는 고용 악화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의 ‘악화’에 좀 더 집중함. 고용 호조 신호로 읽혀 9월 금리 인상의 근거가 돼왔던 5, 6월 수지도 하향된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베팅도 크게 약화.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에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일주일 전 6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수준으로 크게 후퇴. 다만 연말까지 금리가 한 번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10bp 이상 급락했던 미국 채 2년물 국채 금리도 장 중 저점 대비 낙폭을 절반 이상 줄임. 향후 실제 금리 인상과 그에 앞선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결국 미국-이란 전쟁 관련 변수로 인한 유가의 등락, 그리고 이번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물가 지표 등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에 연동될 것으로 보임.

이번주 물가 지표 주시

그런 점에서 이번주 공개될 물가지표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음. 이번주 12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 13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14일에는 미시간대 8월 소비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수치가 공개될 예정. 현재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4% 상승을 기록해 전달 3.5% 상승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이는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는 크게 웃도는 것. 물가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실제 물가 경로는 현재로선 전향과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재개방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난주 높아졌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는 실제 이뤄지지 못했으며 주말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미국이 앞선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마무리짓는 등 선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주장.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민간 선박에 대한 피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주요 운송로를 둘러싼 여전히 상황은 불안정함.

특징종목

S&P500 섹터 내 대부분 업종군이 상승했으며 특히 소재(+1.52%)와 재량 소비재(+1.34%), 정보 기술(+1.25%), 헬스케어(+0.78%), 유틸리티(+0.48%)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 에너지(-1.15%)와 통신 서비스(-0.35%), 금융(-0.32%) 섹터는 하락.

반도체주 대체로 상승: 스토리지/메모리 제외

전일 샌디스크(-3.68%)의 실망스러운 매출 가이드언스를 확인하며 일제히 하락했던 시게이트 테크놀로지(-4.71%), 웨스턴 디지털(-3.81%) 등의 스토리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주 대부분이 강세. 엔비디아(+2.27%), 브로드컴(+1.71%), 인텔(+1.8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2.76%), 마벨 테크놀로지(+3.88%), 퀄컴(+4.6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21%), 램 리서치(+1.82%), KLA(+2.53%). 엔비디아(+2.27%)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에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 IT 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가 있었고 미국이 중국산 광통신용 부품 등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닝(+5.41%), 루멘텀 홀딩스(+6.22%), 코히어런트(+13.44%) 등의 관련 종목이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2.56%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44%)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 공개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SK하이닉스(ADR, -3.92%)는 회사의 주주환원 계획 발표에 장중 낙폭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낙폭 확대 마감. AMD(-1.21%)는 추론칩 전문 업체 탈라스 인수를 발표했지만 비용 부담과 단기 성과 확인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하락.

반도체 관련 ETF는 SMH(+1.96%), SOXX(+2.02%), SOXQ(+2.53%) 등이 대부분 관련주의 상승을 반영하며 2% 내외 강세를 보였지만 DRAM(-1.63%), DISK(-3.25%) 등의 메모리 비중이 높은 ETF는 하락세를 보임.

한편 모건스탠리는 최근 급락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 급격한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전술적으로 매력적인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금리 인상 전망 약화..우주, 양자 등 테마주 강세

부진한 고용 보고서에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고 단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양자 컴퓨팅, 우주 산업 등 대표적인 테마 종목군이 강세.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던 D-WAVE QUANTUM(+6.98%), 리게티컴퓨팅(+8.53%), 아이온큐(+11.86%), 퀀텀 컴퓨팅(+4.62%), 아킵 퀀텀(+6.66%), 인플렉션(+7.20%), IBM(+1.65%) 등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스페이스X(+15.73%)는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한 콜옵션 거래량을 중심으로 옵션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급등, 주간 25.77%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 135달러에 근접. 레드와이어(+14.88%),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11.01%),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7.94%) 등 이외 우주 관련주도 동반 강세.

이외 특징주

이날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도 특징적. 대표 소프트웨어 ETF인 IGV(+3.29%)가 사흘만에 강하게 반등했고 개별 종목으로도 팔란티어 테크(+10.32%),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스포스(+3.20%),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3.39%), 팰로앨토 네트워크(+1.22%), 그리고 오토데스크(+2.73%), 서비스나우(+6.42%), 어도비(+1.91%), 워크데이(+5.52%) 등이 상승.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 아틀라시언(+35.31%)은 전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가이드스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급등.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업체 트윌리오(+24.89%)도 전분기 실적 호조와 연간 실적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에어비앤비(+17.43%)도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고 밝혔고 이후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해 주가 급등세를 시현, 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 광고 테크 기업 트레이드데스크(-21.90%)는 2분기 실적이 매출 기준 시장 예상을 하회한데다 3분기 가이드스도 시장 기대를 밑돈 영향으로 급락.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클라우드플레이어(+5.57%)는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사 네트워킹/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거란 전망과 함께 긍정적 실적 전망을 내놓자 강세. 초반 15% 가까이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장 중 오름폭은 절반 이상 반납.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호르무즈 개방 협상 지지부진..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기대했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협상이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상승세를 유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5% 상승한 배럴당 78.1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0월물은 1.29% 상승한 배럴당 83.55달러에 거래를 마침.

국제 금가격은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 장 중 온스당 4,4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2%대 강세. 은가격도 3% 이상 상승.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전달 비농업부문 고용이 8만명이 증가 전망을 깨고 2만명대 감소를 기록하는 쇼크 수준으로 발표되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내 베팅이 약화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다만 지표 발표 직후 10bp 이상 급락했던 단기물 금리가 낙폭을 절반 이상 줄였고 장기물 금리는 대체로 낙폭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는 고용 이외 확인할 것이 존재함을 시사.

2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5.0bp 하락한 4.1952%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2bp 하락한 4.6454%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2.3bp 하락한 5.2008%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40% 초반대로 전일 50% 중후반대에서 현저히 낮춤.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전일 약 70% 수준에서 50% 후반대로 하락.

달러 가치 하락

부진한 고용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후퇴한데다 일본 재무상의 개

입성 발언으로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미국 달러화 가치는 하락.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39% 하락, 99.539를 기록.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저 없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자 달러-엔 환율은 158엔 초반대에 머무르다 156.65엔대까지 크게 하락(엔화 강세)하기도 했음.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종가에서 7.7원 하락한 1,416.1원을 기록,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래 최저를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55원)를 감안시 8.15원 하락, 1,407.4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